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용택 시인

현관문을 나섰다. 마을은 아직 조용하다. 비가 왔다. 우산을 폈다. 비가 잘 온다. 착실하게 온다. 마음이 착해진다. 우산 위에 빗소리와 오동나무, 가족죽나무, 고욤나무, 오갈피나무 잎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각각 다르게 일렁인다. 바람이 없다. 빗소리가 마을을 불안하게 하거나 위협적이지 않았다. 꼬집리가 아무 일 없는 소리로 노래한다. 참새들이 마당 잔디에서 무엇인가를 물어간다. 할미새가 지붕 끝으로 날아와 앉았다. 자태가 굵다. 파랑새 새끼들 다 길렀는지 나는 연습시킨다.

집 앞에서 종길이 아재를 만났다. 이른 아침인데 벌써 눈에 갔다 오신다. 고라니와 멧돼지 방지를 위해 눈에 가에 둘러놓은 전선 줄 전기를 차단하고 오신다. "생각보다 비가 적게 왔네요." 그랬더니, "말보다 적게 왔고만" 하신다. 종길이 아재가 집 앞 콩밭에 들어서며, "어젯밤에 또 고라니란 놈들이 왔다 갔고 만, 이놈들은 꼭 콩 새순을 푹푹 따먹는 당계" 하신다.

종교칼럼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중국의 차 중에 문화혁명시대에 만들어진 차를 일컬어 문혁전차라 한다. 문화혁명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문혁', '별들 모양의 차라고 해서 '전차'. 전문적인 설명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차 애호가나들이나 관심 가질 일.

얼마 전, 바로 이 문혁전차를 마셨다. 오래 묵은 차 특유의 맛과 향이 있어서 마시는 즐거움이 배가되는 차였다. 차의 맛이 좋아서 무슨 차냐고 주인장에게 물으니 '문혁전차'라고 하였다. 이 '문혁'이 문화혁명의 '문혁' 일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차 이름 치고는 참 독특하다고만 생각했다. 검색해보니 문화혁명시대 만든 차라고 한다. 문화혁명과 차의 조합이 상당히 낯설다.

예전에 왜 중국사람들은 광장에 나와서 단체로 춤을 추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다룬 유튜브를 본 적 있다. 요지만 말하자면 이들의 대다수는 이제 장년층이 된 홍위병 출신이라는 것이다. 이 한마디로 단번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들의 정신세계와 라이프스타일은 문화혁명 시대에 멈춰서 있었다. 시대의 희생양이었던 홍위병들은 여전히 견제하고 있었다.

문혁전차는 대부분 당시 당간부들에게 상납할 목적

기고



김영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전남도는 오랜 기간 낙후된 의료 환경 개선과 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국립의대 유치에 힘써왔다. 그 결과 정부가 전남도에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제 결실을 맺기 위해 전남도의 국립의대 설립대학 선정이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았다.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전남도청에서 개최된 전라남도 민생토론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의 전남 국립의대 신설 요청 사항에 대해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어느 대학에 할지를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정부차원의 국립의대 신설 방침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3월 20일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원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대통령 발언을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했다.

얼마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전남 의대 신설과 관련해 "전남도가 빨리 의견을 수렴해서 대안을 제시하면 신속하게 검토하겠다"

마을을 한 바퀴 돌았다

강가로 나왔다. 돌아가신 당숙모네 밭에 이장이 콩을 심어놓았다. 이장 부인이 콩밭 풀을 매다 말했다. 다른 급한 일이 생겼냐고 보자. 뽕아 모아둔 풀과 호미가 비 맞는다. 이장이 우리동네 농사를 다 짓다시피 한다. 옥수수 옆에 떨어지는 빗소리도 톡톡도차분하다.

강가에 섰다. 물이 조금 불었다. 물이 다리를 넘어간다. 어제 온 비와 보태졌다. 뽕덩굴이다. 어디서 갑자기 소낙비가 왔다 보자. 강 건너를 보았다. 뽕나무들이 묵은 밭 갈나무를 타고 올라가 감싸버렸다. 갈나무 형체가 보이지 않는다. 큰 돌들이 물에 잠겨 물살을 일으킨다.

오늘도 마을을 한 바퀴 돌기로 한다. 마을 제일 끝집인 양식이네 집을 지났다. 양식은 아직 출근 전이다. 전주 누나네 집 식당 일을 돕는다. 현수네 집에는 불이 켜져 있다. 텔레비전 소리가 새어나온다. 현수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거동이 불편했는데, 어제는 회관까지 걸어오셨다. 집 안에서 새어나온 목소리가 정상이 되었다. 현수네 집 위 이장네 집도 불이 켜져 있다. 이장 말소리가 들린다. 일 나갈 준비를 하는 모양이다. 재호네 집 앞을 지났다. 천수네 빈집터에 풀이 우복하다. 천수네 집 앞 눈을 메우어 천수 여동생이 새로 집을 짓고 있다. 집이 다 되어간다. 오래 묵은 태환이 형 빈 집터를 지났다. 태수네 어머니는 딸네 집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빈집으로 오래 있어서 마당에 풀이 많이

자랐다. 마당 가 죽은 대추나무에 참새들이 앉아 있다. 태금이네 빈 집 마당 풀이 자라고 했다. 주성이네 집도 고요하고, 점순네 집도 고요하다. 마당에서 흰 개가 자기 집에서 나를 내다보고 있다. 마을회관도 정자도 아직 조용하다. 정자 마루에 부채와 파리채와 물병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 사람들이 페트병에 물을 넣어 목처럼 메고 앉았을 잔다. 리모텔링 하는 만조형님네 집을 지나 우리 집 앞을 지났다. 우리 집 담에 능소화꽃이 땅에 떨어져 비를 맞는다. 집 앞 텃밭에 참깨꽃이 희게 피었다. 밭 가에 옥수수가 내 키를 넘게 자랐다. 곧 옥수수를 따겠다. 판조 형님이 집 부엌 쪽문에 불이 환하다. 창문 너머로 텔레비전 사극 속 격노하는 왕 앞에 도열한 장수들 얼굴이 심각하다. 종현이네 집 마당에 웬 승용차가 있다. 누가 왔을까? 못 보던 차다. 당숙모가 안 계신 당숙모네 집은 적막하다. 오래 묵은 세군이네 빈집 담에 담쟁이덩굴이 무성하다. 마당에는 개망초꽃이 빗속에 모여 희디희디. 현미네 집 앞에 차가 있다. 출근 전이다. 한수 형님네 집, 종길이 아재네 집을 바라보고, 다시 마을 큰길로 나왔다.

바람이 일었다. 마을 앞 커다란 느티나무 밑을 지날 때 나뭇잎 부딪치는 소리가 크다. 강물이 출렁인다. 옥수수잎과 참깨꽃이 심하게 흔들린다.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고 새들이 조용하다. 그때다. 후두두 굵은 빗방울이 얼굴을 때린다. 집으로 뛰었다. 먼 곳에서 천둥이 으르렁거린다. 나라에 큰비가 온다고 한다.

'문혁전차'와 광장무

으로 만들어진 한정판이었다. 그래서 차보다는 차를 포장하는 포장재가 더 비싸기도 했다. 세월이 흘러 당시의 제작기법으로 만든 차들까지 통칭해서 문혁전차라고 한다. 차 자체가 그리 고급스런 차는 아니다. 그러나 간혹 오랜 세월을 거치며 뛰어난 맛을 품게 된 것들은 어느새 호사기들이 즐기는 차의 반열에 들기도 했다.

광장무, 문혁전차 둘 다 모두 문혁혁명이 남긴 흔적이다.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문화혁명은 여전히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죽어도 죽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유령처럼, 모택동은 지금도 중국인들의 의식 속에 스며들어 있다. 영화 '호우시절'에서는 광장무가 참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다. '고원별'이라는 우리에겐 매우 낯선 중국 여배우가 여주인공 메이로 나온다. 그녀는 미끄러지듯 자연스럽게 광장무를 추는 무리 속으로 들어가 한 마리 학처럼 우아하게 춤을 춘다. 하지만 이견 어디까지나 영화일 뿐이다. 호사기들의 차로 살아남은 문혁전차나 고작하여 광장에 모여 단체로 춤추는 것 말고는 딱히 할 일이 없는 늙은 홍위병세대들이나, 그리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

일본에 전공투 세대가, 한국에 운동권 세대가 있었다. 중국에는 그보다 훨씬 더했던 홍위병세대가 있었다. 사회와 등장배경에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역사 속으로 사라진 뒷모습의 인상은 어떤 일인지 비슷하다. 홍위병세대가 광장무 세대로 변하고, 문혁전차는 호사기들을 위한 값비싼 차로 탈바꿈했다. 그리고 소위 '운동권'이었던 나도 어느새 제도권 깊숙이 뿌리내리고,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문혁전차를 마신다.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

다.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는 일종의 이념이지만 민주주의는 그러한 이념들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아무리 만인을 위한 이념이라도 어떤 그릇에 담아내느냐에 따라, 현실화되는 모습은 달라진다. 이는 20세기의 역사가 피로써 증명하는 바이다. 개인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훌륭한 사상과 박학다식한 지식이 있어도, 담아내는 그릇이 쓸만해야 한다. 사람의 그릇은 그 사람의 됨됨이이며, 한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갈고 닦은 수행에 의존한다.

새벽부터 안개가 무척이나 짙다. 맞은편의 행원당 건물이 흐릿하게 존재감만 내비칠 정도다.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든 안개 때문일까? 아니면 한치 앞도 분간하지 못하고 허겁지겁 여영부영 살아온 인생살이 때문일까? 아니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난 삶에 대한 회한 때문일까? 아침 댓바람부터 마음 한구석이 찻찻하다.

그나마 씩씩해 할 추억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아주 오래전 중학생 시절, 라디오에서 들었던 이야기 한 토막이 불현듯 떠오른다. 무슨 일인지 마음의 상처를 입은 10대 소녀가 사립의 할머니 집으로 왔다. 소녀는 슬퍼하며 할머니에게 말한다. "나도 할머니처럼 여기서 살거야." 그러자 할머니가 다정하게 대답한다. "너는 아직 넷 삼아 자낼 추억이 없어서 여기서 살 수 없단다." 어느덧 할머니의 심정이 조금이나마 이해되는 나이가 되었다. 산다는 것은 홀 흐르듯 흐르는 것이다.

"다 지나간다" 1911년에 태어나 괴판만장했던 중국의 현대사를 몸소 겪고 98세에 세상을 떠난 중국의 노철학자 지센린의 에세이집 제목이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 순천 신속한 공모 참여를

고 발언해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모 당위성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전남도의 의대 신설 단일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육부와 복지부가 계속 협의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게 전남도의 의견 제출에 따라 설립대학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 장관도 전남도 의대 설립은 전남도의 의사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혀 이제는 전남도가 공정한 공모를 통해 의대 설립대학을 추천해야 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

이런 정부방침에 따라 공정한 심사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전남도의 의대 신설 공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순천시는 독자적 의대유치 진행 등 공방을 이어가며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도의 정부 추천대학 선정 공모를 인정하는 정부의 입장과 상반된 모습이다.

전남도 공모를 둘러싼 순천시의 과도한 발목잡기는 국립의대 신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견전한 경쟁은 발전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갈등과 대립은 장애가 될 뿐이다. 이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 순천시가 빠른 시일내에 전남도 공모에 참여해, 30년 기다림의 마지막 관문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총력을 결집할 때다.

전남의 의료산업은 한마디로 아쉽다. 필자는 전남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남의 맛과 멋 등 전남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관광상품 개발과 국내외 관광설명

회를 개최하며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관광 트렌드인 웰빙, 웰니스 관광의 핵심인 의료관광 인프라가 부족하다.

K-관광의 큰 축은 K-의료관광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인 60만명을 넘어 외국인 환자 유치 집계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이다. 국가별로는 일본, 중국, 미국, 태국, 몽골 등 의료서비스 비용이 높거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국가의 30~60대 중산층 이상 소득계층이다.

정부는 신(新) 한국 의료 붐을 위해 2027년까지 외국인 환자 유치 목표를 70만명으로 설정하고, 의료관광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지원 확대와 더불어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제도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에 중국, 몽골, 베트남 등 대규모 의료 관광 문이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의과대학조차 없는 전남의 의료관광 수용태세는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어 관광객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에 국립의대를 설립해 의료관광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전남은 천혜의 자연 환경과 음식, 역사문화 등 인문학적 자원까지 풍부해 다른 관광산업에 비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관광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처럼 신속하게 대비해 전남 여러 지역을 보물로 만드는 데 기여할 때이다. 국립의대 신설은 전남 미래성장 위한 역사적 기회이다. 상생과 화합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30년 숙원을 꼭 풀어야 한다. 2026년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로 펼쳐질 지속가능한 전남 발전을 고대한다.

社說

1위 질주 기아...경제 전인 효과로 이어지길

요즘 기아 타이거즈 팬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사라질 날이 없다. 2017년에 이어 7년만에 리그와 한국시리즈 우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구 천재' 김도영의 믿기지 않는 활약 덕분이다.

올해 기아 타이거즈는 전반기 잠깐 1위를 내준 적이 있지만 후반기 들어 10개 팀 가운데 유일하게 6월이 넘는 스투로 1위 굳히기에 들어갔다. 무엇보다도 홈런 타자가 즐비한 타선의 힘이 크지만 이종범을 뛰어넘는 김도영의 활약이 큰 몫을 하고 있다. 김도영은 4월 KBO 최초로 '월간 10홈런-10도루'라는 기록을 쓴데 이어 최근 1루타부터 홈런까지 순서대로 치는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로 팬들을 열광시켰다. 김도영이 기록한 4타석만의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는 KBO 역사상 최초이자 최연소 기록이다. 타이거즈 팬들 사이에서 "김도영 보는 재미에 산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1위 질주와 슈퍼스타의 활약으로 인한

타이거즈 효과는 홈구장인 기아 챔피언스 필드를 전광석화한 핫플로 만들고 있다. 경기 외에도 다양한 굿즈와 먹거리, 즐길거리를 찾아 구경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2017년 우승 당시 100만 관객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타이거즈 효과로 경기장 상권은 기대 이상으로 달아 올랐는데 이참에 침체된 광주지역 경기를 끌어올리는 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시즌 전 홈경기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체험형 투어 관광상품을 출시했다. 타이거즈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광주만의 차별화된 스포츠 관광상품을 선보였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점검해 볼 시점이다. 광주는 타이거즈라는 전국 최고의 인기 구단을 가지고 있다. 올해처럼 리그 1위라는 성적과 슈퍼스타의 활약까지 결합 행운의 해는 많지 않다. 타이거즈 효과를 지역 경제와 연계하는 노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람 잡는 '극한 폭염' 민·관 함께 이겨내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이 연일 체감온도 35도를 오르내리는 전경 같은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폭염뿐만 아니라 열대야까지 수일째 지속되고 있으며, 주간에는 짙은 소나기에 습도까지 높아 건강을 해치기 쉬운 시기이다. 실제 23일 현재 광주·전남에서만 80명이 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노약자들의 여름 건강 관리에 비상한 각별이 필요하다. 35도 내외의 폭염에서는 사람이 단 몇분 간의 활동에도 치명적인 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폭염은 한반도 상공 고도 약 12km 지점에 티베트고기압, 5-6km 지점에 북태평양고기압이 배치되면서 고온다습한 기후가 이어진 것이 원인이다. 이런 기상 현상은 태양열이 지표면을 계속 달궈 열돔현상을 낳는데다, 짙은 소나기로 습도마저 높아 일상을 힘들게 한다.

폭염에 대한 건강 대책은 달리 비결이 없다. 무더운 날, 무더운 시간에 야외 활동이

나 일을 하지 않아야 하며, 노약자들은 아예 외출을 삼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여전히 여름철에도 외근 등 일을 해야 하고, 주부나 노인들도 은행 업무를 비롯해 관공서 민원이나 개인 업무가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극한 폭염은 그 자체가 시민들을 위협하는 재난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지자체들은 시민들의 이동 환경이나 생활 주변에서 더위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먼저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노인과 농부들이 폭염 상황에서 농작업을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도 폭염경보시에는 살수차 운영을 늘리고, 낮 최고기온이 높아지면 지하철이나 관공서 민원실 등의 적정 온도를 기준보다 1~2도 가량 낮추는 단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출입이 잦은 은행이나 백화점, 마트 등도 폭염시에는 더위 해소에 도움이 될 정도의 실내 냉방을 유지해줄지 바란다.

無等鼓

가끔 까마귀는 독수리를 공격한다. 까마귀의 공격 스타일은 독수리의 목덜미를 부리로 찌는 형태다. 하지만 독수리는 싸우지 않는다고 한다. 단지, 날개를 활짝 펴고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른다. 그럼 따라가던 까마귀는 제풀에 지쳐 공격을 포기하거나 산소 부족으로 기절하기도 한다. 자신보다 약한 상대에게서 입을 수 있는 작은 상처도 감영 탓에 야생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독수리의 대응은 상대가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는

급력이 컸고, 야당의 공세도 거셌다. 과거에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권경쟁서 불거진 다스 차명 보유 비선실세 의혹 폭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됐다.

강자의 아름다운 대응이

독수리

하는 뒤끝도 남겼다. 공격과 폭로는 정치의 속명일 수 있다. 정치판 곳곳에 까마귀의 날카로

정에서 불거진 당 대표 후보 간 진흙탕 싸움이 정치판에 긴 여운을 남기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읽고도 무시했다는 논란에서 시작해 지난 대선 때 댓글 팀을 운영했다는 폭로로 이어졌다. 급기야 한 명의 후보를 둘러싼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발언까지 나오면서 당 안팎이 상당한 충격에 휩싸였다. 전당대회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상대에 대한 공격을 늘리는 일이지만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내분은 당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파

곳곳에 까마귀의 날카로운 부리는 언제나 존재한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을 죽을 문턱까지 몰아갔던 적들 속에서 '용서'를 통해 더 높게 비상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내를 버려야 하나"는 말 한마디로 장인의 죄의 활동은 란을 쫓아대던 슬한 부리를 무안하게 했다. 어쩌면 국민은 맞서 싸우는 정치인의 피 묻은 '부리' 보다는 정적을 뒤로 하고, 창공을 향해 활짝 펼치는 찬란한 '날개'를 보고 싶어 할지 모르겠다. /오광록 서울취재본부 부장 kroh@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